

19 벽에 쓰인 글씨

다니엘 5장



왕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기록한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귀족 천 명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 그릇, 은 그릇으로 모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궁의 촛대가 있는 맞은편의 ¹⁾분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너무 두렵고 놀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여 주리라.”

그러나 그 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¹⁾분벽: 히알게 칠한 벽

성
경
암
송

여호와께는 지식의 하나님이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3)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 이 글의 뜻을 알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자주 옷과 금 사슬을 주고 너를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이리라.”

“왕이시여! 왕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의 잔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왕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기록한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다니엘을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알아볼까요



벨사살 왕에 대하여

다니엘 5장 30절에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대로 기원전 536년에 메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성경이 말하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란 이름은 다니엘서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조차도 벨사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니엘서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76년 로렌스가 발견한 서판에서 나보니두스가 통치하는 중에 마지막 10년을 테마란 곳에서 보내면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 궁을 지키며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첫째이고, 벨사살이 둘째요, 다니엘이 그 다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말하는 벨사살에 대한 기록은 사실임이 입증됐습니다.

부모님만

선생님만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parent notes.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eacher notes.